



**2015학년도 제주대학교 여대생  
실태조사 연구**



# 2015학년도 제주대학교 여대생 실태조사 연구

〈 목 차 〉

|                |             |
|----------------|-------------|
| 초 록            | IV. 요약 및 결론 |
| I. 서 론         | 참고문헌        |
| II. 연구대상 및 방법  |             |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             |

## < 초 록 >

본 조사의 목적은 제주대학교 여학생들의 대학생활, 진로·취업 의식 등 실태를 파악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학생들의 대학생활 및 진로·취업 지도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조사에서는 대학생활 및 진로와 취업 분야, 학생상담센터 인식 등에 대한 생각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을 구성하였고, 설문응답자가 직접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설문조사는 2015년 11월 27일(금)부터 12월 4일(금)까지 7일 동안 각 과에 협조를 통해 이루어졌고, 구체적으로 층화추출표본방식에 의해 단과대학별로 총 500명에게 배부되었으며, 그 중 회수된 447부(89.4%)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조사의 주요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대학교 재학중인 여학생들은 본교의 평판 및 이미지와 본교 학생이 된 것에 대해 비교적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전공 선택 동기는 적성과 흥미, 성적이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재 가장 필요한 정보로는 진로 및 취업문제, 전공학과의 특성과 전망 등 향후 진로선택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졸업 후 진로계획에 대해서는 취업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대학교 여학생들 진로선택의 시기는 3학년, 2학년이 높은 비율을 차지함에 따라 저학년부터 체계적인 진로지도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제주대학교 여학생들은 괜찮은 일자리 판단 기준으로 고용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자아실현, 근무 여건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준비와 관련하여 외국어 능력이 가장 필요한 항목으로 나타났고, 취업스트레스요인으로는 자신의 능력부족, 불투명한 미래전망, 선택에 대한 불안 등으로 응답하였다.

넷째, 취업 또는 채용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에 대해 학교 선배, 친인척 등 주변 네트워크, 전공 교수님의 순으로 응답함에 따라 학내 취업정보사이트 이용의 필요성 및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취업정보 획득의 중요성 교육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학생들의 진로·취업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자격증, 공인 외국어 시험 등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대학 및 학과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각종 진로상담 및 지도, 취업과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관리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 I. 서 론

2015학년도 제주대학교 여대생 실태조사 연구는 제주대학교 여대생들이 대학생활에서 필요한 정보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학교생활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와 취업의 결과를 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조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여대생들의 대학생활 전반, 진로 및 취업부문, 학생상담센터 인식 등에 대해 파악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정리하는 데에 있다.

최근 급속적인 사회변화로 인해 여성들의 사회적 또는 경제적인 활동이 양적, 질적으로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고학력 여성인력의 양성과 경력 개발은 건전한 사회 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필수조건이 되었다. 특히 대학 내에서의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이 같아지는 상황에서 고급 여성 인력의 효율적인 육성과 활용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과는 반대로 우리나라의 청년 취업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졸 여성의 취업 현실은 대졸 남성에 비해 더 어려운 상황으로서 많은 대졸 여성들이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분야에 취업을 하고, 하향취업을 하는 등 소위 말하는 팬찮은 일자리로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지난 2003년부터 내학 내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민무숙 외, 2011).

여대생의 경우에는 진로 결정에 있어서 남성들보다 더 많은 장벽들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아 그리고 일과 직업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많은 혼란과 장애를 스스로 겪을 수 있다(박소희, 2011). 또한 진로문제는 여대생들의 주된 스트레스 요인 중의 하나이며, 최근 다양한 직업의 출현과 함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사회의 경제적인 침체 등 취업할 수 있는 기회의 축소로 인하여 여대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윤우(2009)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 교육수준의 향상 등에 따라 우수한 여성 인력들의 사회 진출이 과거에 비해 아주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기업에서도 여성의 인력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지식기반사회에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성인력의 활용에 있어서도 고학력 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오윤정 · 남진열(2015)의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대학생의 진로 준비 및 취업 장벽에 대한 실태 분석을 통해 진로 관련 교과목 수강 여부에 따라 진로 선택시 어려움에 대해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희망분야 취업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공계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진로 관련 교과목의 커리큘럼 보완 및 수강 의무화의 필요성 제시, 학년별, 전공계열별 맞춤형 취업 지원 정책 실시, 취업 정보 제공 방법의 다양화 모색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조사는 제주대학교 여학생들의 대학생활 및 진로와 취업 분야에 대해 설문 조사를 하고, 각각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할 것이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의 내용을 개선, 발전시켜나가고자 한다. 본 조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의 내용을 개선, 발전시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대학 시기에 취업에 대한 의식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다양한 경험과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스스로 진로결정을 할 수 있도록, 취업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여학생들의 대학생활 및 진로·취업 실태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II.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조사는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학생들의 대학생활 및 진로·취업에 대한 생각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에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설문의 내용은 크게 대학생활, 진로 및 취업, 학생상담센터와 상담, 성 평등의식, 응답자의 개인사항(소속대학, 학년, 출신고교 등)에 관한 영역으로 이루어졌다.

설문대상의 소속 단과대학별, 학년별, 출신 고등학교 지역별 분포는 <표 2-1>, <표 2-2>, <표 2-3>과 같다.

단과대학의 경우, 경상대학의 응답비율이 21.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자연과학대학(15.0%), 인문대학(9.6%), 교육대학(8.3%), 공과대학(7.4%), 사회과학대학(7.2%)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수의과대학(2.0%), 간호대학(5.6%), 사범대학(5.6%)의 응답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2-1> 소속대학별 비율

| 소속대학     | 응답수 | 비율(%) |
|----------|-----|-------|
| 인문대학     | 43  | 9.6   |
| 사회과학대학   | 32  | 7.2   |
| 경상대학     | 95  | 21.3  |
| 사범대학     | 27  | 6.0   |
| 생명자원과학대학 | 25  | 5.6   |
| 해양과학대학   | 26  | 5.8   |
| 자연과학대학   | 67  | 15.0  |
| 공과대학     | 33  | 7.4   |
| 수의과대학    | 9   | 2.0   |
| 간호대학     | 25  | 5.6   |
| 예술디자인대학  | 28  | 6.3   |
| 교육대학     | 37  | 8.3   |
| 계        | 447 | 100.0 |

학년별 분포를 살펴보면, 2학년(26.6%), 4학년(25.1%), 3학년(24.4%), 1학년(23.9%)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조사결과(1학년-8.9%, 2학년-28.0%, 3학년-34.6%, 4학년-28.5%)와 비교해 볼 때 매우 고른 분포로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2〉 학년별 비율

| 학년  | 응답수 | 비율(%) |
|-----|-----|-------|
| 1학년 | 107 | 23.9  |
| 2학년 | 119 | 26.6  |
| 3학년 | 109 | 24.4  |
| 4학년 | 112 | 25.1  |
| 계   | 447 | 100.0 |

출신 고등학교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제주도 출신은 82.8%, 제주도의외 출신이 17.8%로 나타나 도내 출신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제주도의외 출신의 경우, 인천/경기도(5.8%), 부산/울산/경남(2.5%), 광주/전남(2.2%), 서울(2.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3〉 출신 고등학교 지역별 비율

| 출신 지역    | 응답수 | 비율(%) |
|----------|-----|-------|
| 제주도      | 370 | 82.8  |
| 서울       | 9   | 2.0   |
| 인천/경기도   | 26  | 5.8   |
| 강원도      | 3   | 0.7   |
| 충북       | 3   | 0.7   |
| 대전/충남    | 6   | 1.3   |
| 대구/경북    | 5   | 1.1   |
| 부산/울산/경남 | 11  | 2.5   |
| 전북       | 2   | 0.4   |
| 광주/전남    | 10  | 2.2   |
| 해외       | 2   | 0.4   |
| 계        | 447 | 100.0 |

### Ⅲ. 연구결과 및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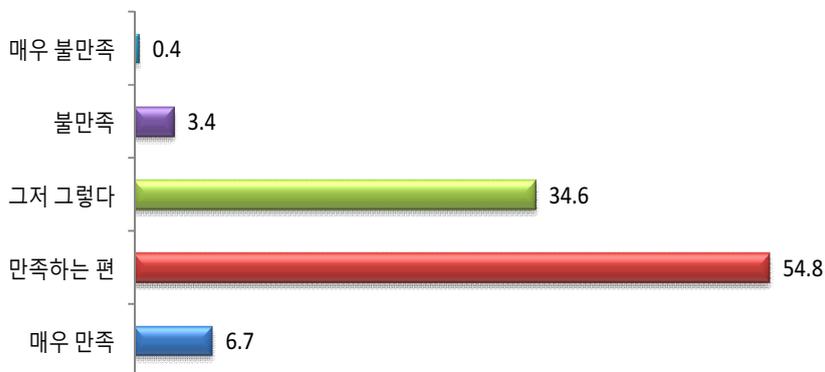
#### 1. 대학생활 분야

##### 1) 제주대학교의 평판 및 이미지에 대한 만족도

여학생들의 본교의 평판 및 이미지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61.5%의 학생이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만족이라는 응답은 3.8%로 나타났다.

〈표 3-1〉 제주대학교의 평판 및 이미지에 대한 만족도

| 구 분    | 응답수 | 비율(%) |
|--------|-----|-------|
| 매우 만족  | 30  | 6.7   |
| 만족하는 편 | 244 | 54.8  |
| 그저 그렇다 | 154 | 34.6  |
| 불만족    | 15  | 3.4   |
| 매우 불만족 | 2   | 0.4   |
| 계      | 445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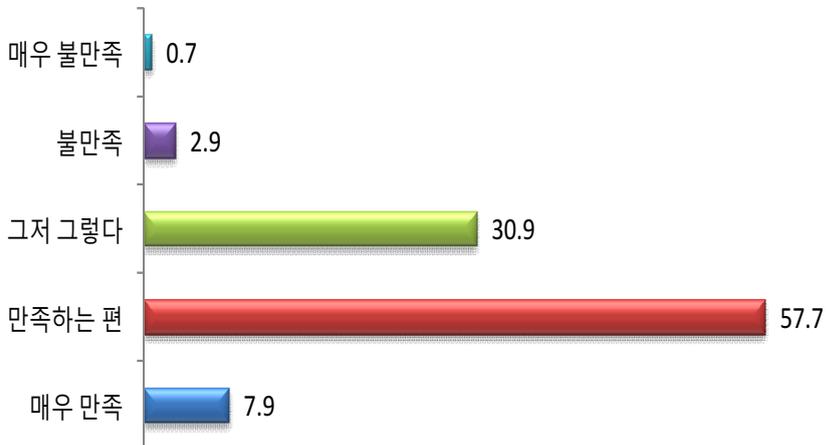
〈그림 3-1〉 본교의 평판 및 이미지에 대한 만족도

## 2) 제주대학교 학생이 된 것에 대한 만족도

여학생들이 본교의 학생이 된 것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65.6%의 학생이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평판 및 이미지에 대한 만족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만족이라는 응답은 3.7%로 나타났다.

〈표 3-2〉 본교 학생이 된 것에 대한 만족도

| 구 분    | 응답수 | 비율(%) |
|--------|-----|-------|
| 매우 만족  | 35  | 7.9   |
| 만족하는 편 | 256 | 57.7  |
| 그저 그렇다 | 137 | 30.9  |
| 불만족    | 13  | 2.9   |
| 매우 불만족 | 3   | 0.7   |
| 계      | 444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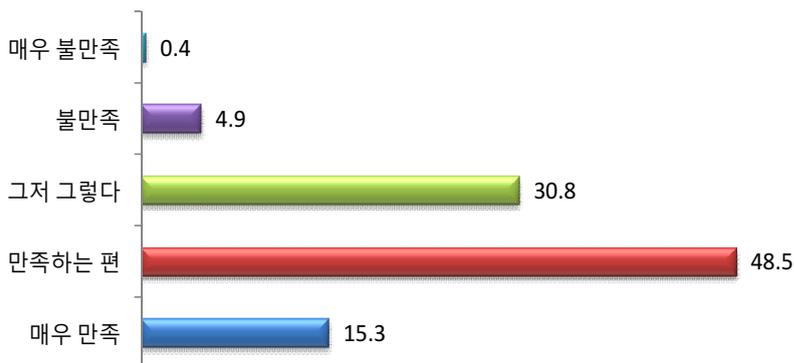
〈그림 3-2〉 본교 학생이 된 것에 대한 만족도

### 3) 전공에 대한 만족도

여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63.8%의 학생이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만족이라는 응답은 5.3%로 나타났다. 한편 2014년도에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그저 그렇다’는 보기를 제외하고 질문한 결과, 79.6%(아주 만족한다-23.1%, 조금 만족스럽다-56.5%)는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20.4%(약간 만족스럽지 못하다-17.2%, 매우 불만족하다-3.2%)는 불만족하다고 응답하여 2015년과 비교할 때 아주 만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3〉 전공에 대한 만족도

| 구 분    | 응답수 | 비율(%) |
|--------|-----|-------|
| 매우 만족  | 68  | 15.3  |
| 만족하는 편 | 216 | 48.5  |
| 그저 그렇다 | 137 | 30.8  |
| 불만족    | 22  | 4.9   |
| 매우 불만족 | 2   | 0.4   |
| 계      | 445 | 100.0 |



〈그림 3-3〉 전공 만족도

#### 4) 전공 선택 동기

전공을 선택하게 된 동기를 묻는 문항에는 ‘적성과 흥미에 맞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48.0%), 다음으로 ‘성적 때문에(22.7%)’, ‘취업에 도움이 되므로(14.2%)’, ‘지인의 권유에 의해(13.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도의 결과(적성과 흥미에 맞아서-48.8%, 성적 때문에-20.1%, 지인의 권유에 의해-14.8%, 취업에 도움이 되므로-13.7%)와 비교할 때, ‘성적 때문에’와 ‘취업에 도움이 되므로’의 비율이 조금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표 3-4〉 전공을 선택하게 된 동기

| 구 분                     | 응답수 | 비율(%) |
|-------------------------|-----|-------|
| 취업에 도움이 되므로             | 63  | 14.2  |
| 적성과 흥미에 맞아서             | 213 | 48.0  |
| 성적 때문에                  | 101 | 22.7  |
| 지인(부모, 형제, 선생님)의 권유에 의해 | 58  | 13.1  |
| 기타                      | 9   | 2.0   |
| 계                       | 444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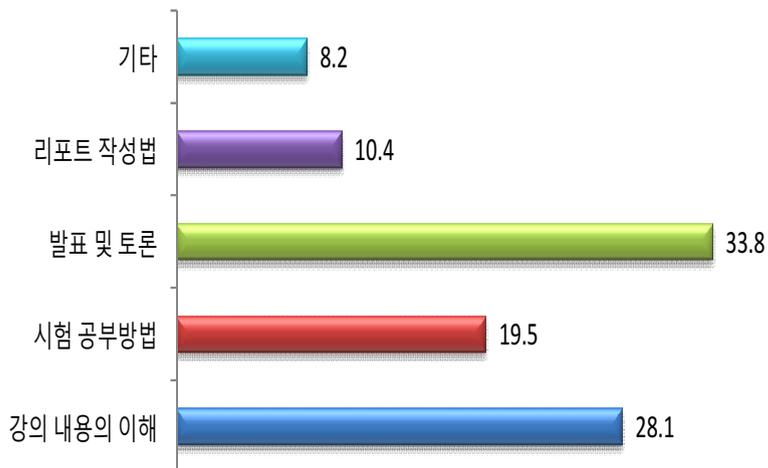
〈그림 3-4〉 전공을 선택하게 된 동기

### 5) 대학 수업에서 가장 어려운 점

여학생들이 현재 대학 수업에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발표 및 토론’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33.8%), ‘강의 내용의 이해(28.1%)’, ‘시험 공부방법(19.5%)’, ‘리포트 작성법(10.4%)’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3-5〉 대학 수업에서 가장 어려운 점

| 구 분       | 응답수 | 비율(%) |
|-----------|-----|-------|
| 강의 내용의 이해 | 124 | 28.1  |
| 시험 공부방법   | 86  | 19.5  |
| 발표 및 토론   | 149 | 33.8  |
| 리포트 작성법   | 46  | 10.4  |
| 기타        | 36  | 8.2   |
| 계         | 441 | 100.0 |



〈그림 3-5〉 대학 수업에서 가장 어려운 점

### 6) 학업 외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활동

여학생들이 학업 외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활동에 대한 우선순위는 <표 3-6>과 같다. 우선순위별 가중치<sup>1)</sup>를 두어 분석한 결과 ‘친구들과의 만남’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아르바이트’, ‘공부/독서’, ‘이성교제’, ‘영화/공연 관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6>학업 외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활동

| 구분       |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전체 점수 |
|----------|-----|-------|-----|-------|-----|-------|-------|
|          | 응답수 | 비율(%) | 응답수 | 비율(%) | 응답수 | 비율(%) |       |
| 공부/독서    | 72  | 16.2  | 40  | 9.1   | 70  | 16.3  | 366   |
| 친구들과의 만남 | 155 | 34.9  | 128 | 29.0  | 69  | 16.0  | 790   |
| 이성교제     | 53  | 11.9  | 54  | 12.2  | 37  | 8.6   | 304   |
| 운동       | 11  | 2.5   | 18  | 4.1   | 21  | 4.9   | 90    |
| 영화/공연 관람 | 21  | 4.7   | 56  | 12.7  | 86  | 20.0  | 261   |
| 동아리 활동   | 18  | 4.1   | 9   | 2.0   | 17  | 4.0   | 89    |
| 아르바이트    | 82  | 18.5  | 79  | 17.9  | 58  | 13.5  | 462   |
| 음주       | 2   | 0.5   | 21  | 4.8   | 36  | 8.4   | 84    |
| 게임/오락    | 8   | 1.8   | 25  | 5.7   | 16  | 3.7   | 90    |
| 종교활동     | 3   | 0.7   | 6   | 1.4   | 9   | 2.1   | 30    |
| 기타       | 19  | 4.3   | 5   | 1.1   | 11  | 2.6   | 78    |
| 계        | 444 | 100.0 | 441 | 100.0 | 430 | 100.0 |       |

### 7) 현재 필요한 정보

여학생들이 대학생들과 관련하여 현재 가장 필요한 정보에 대한 우선순위는 <표 3-7>과 같다. 우선순위별 가중치를 두어 분석한 결과 ‘진로, 취업 및 채용정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전공학과의 특성과 전망’, ‘효과적인 학습방법’, ‘대학원 진학 및 해외유학정보’, ‘장학금 제도’,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 정보’, ‘아르바이트 정보’, ‘학

1) 1순위, 2순위, 3순위 등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에 각 순위별로 동일한 응답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가중치를 부여한 후 각 응답의 합계 또는 평균을 산출하여 순위를 부여하였음. 예를 들어 1순위는 3점, 2순위는 2점, 3순위는 1점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였을 때 ‘친구들과의 만남’(790) = (155 × 3) + (128 × 2) + (69 × 1), ‘아르바이트(462)’ = (82 × 3) + (79 × 2) + (58 × 1) 등의 순서가 되며, 이하 3개 이상의 우선순위 문항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함.

사규정 정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도의 결과와 비교할 때 ‘효과적인 학습방법’과 ‘아르바이트 정보’ 순위는 높아진 반면, ‘학사규정 정보’ 순위는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표 3-7〉 현재 필요한 정보

| 구 분             |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전체<br>접수 |
|-----------------|-----|-------|-----|-------|-----|-------|----------|
|                 | 응답수 | 비율(%) | 응답수 | 비율(%) | 응답수 | 비율(%) |          |
| 전공학과의 특성과 전망    | 118 | 26.6  | 95  | 21.5  | 47  | 10.7  | 591      |
| 진로, 취업 및 채용 정보  | 194 | 43.8  | 116 | 26.3  | 46  | 10.5  | 860      |
| 학사규정 정보         | 13  | 2.9   | 14  | 3.2   | 25  | 5.7   | 92       |
|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 정보  | 15  | 3.4   | 18  | 4.1   | 42  | 9.6   | 123      |
| 효과적인 학습 방법      | 37  | 8.4   | 62  | 14.1  | 51  | 11.6  | 286      |
| 학생회 및 동아리 정보    | 3   | 0.7   | 4   | 0.9   | 8   | 1.8   | 25       |
| 아르바이트 정보        | 10  | 2.3   | 14  | 3.2   | 38  | 8.7   | 96       |
| 대학원 진학 및 해외유학정보 | 25  | 5.6   | 61  | 13.8  | 74  | 16.9  | 271      |
| 이성교제방법 및 성지식    | 2   | 0.5   | 3   | 0.7   | 11  | 2.5   | 23       |
| 장학금 제도          | 23  | 5.2   | 46  | 10.4  | 83  | 18.9  | 244      |
| 대학생활 가이드 안내     | 3   | 0.7   | 8   | 1.8   | 14  | 3.2   | 39       |
| 계               | 443 | 100.0 | 441 | 100.0 | 439 | 100.0 |          |

## 8) 대학생활에서 하고 싶은 일

여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우선순위는 <표 3-8>과 같다. 우선순위별 가중치를 두어 분석한 결과 ‘해외어학연수 또는 해외인턴쉽’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깊이 있는 전공 공부’, ‘폭넓은 대인관계’, ‘진로선택’, ‘고시/자격시험 준비’, ‘이성교제’, ‘교양서적 탐독’, ‘각종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필요한 정보 순위에서는 진로, 취업 및 채용 정보의 우선순위가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대학생활에서 하고 싶은 일은 진로 선택이나 고시/자격시험 준비보다는 해외어학연수, 전공 공부, 폭넓은 대인관계라고 응답한 내용이 특징적이며,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는 진로 지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3-8〉 대학생활에서 하고 싶은 일

| 구 분             |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전체<br>점수 |
|-----------------|-----|-------|-----|-------|-----|-------|----------|
|                 | 응답수 | 비율(%) | 응답수 | 비율(%) | 응답수 | 비율(%) |          |
| 깊이 있는 전공 공부     | 90  | 20.3  | 56  | 12.7  | 64  | 14.5  | 446      |
| 고시/자격시험 준비      | 48  | 10.8  | 83  | 18.8  | 51  | 11.6  | 361      |
| 교양서적 탐독         | 13  | 2.9   | 20  | 4.5   | 33  | 7.5   | 112      |
| 각종 동아리활동        | 12  | 2.7   | 23  | 5.2   | 21  | 4.8   | 103      |
| 이성교제            | 31  | 7.0   | 21  | 4.8   | 26  | 5.9   | 161      |
| 폭넓은 대인관계        | 56  | 12.6  | 80  | 18.1  | 81  | 18.4  | 409      |
| 해외어학연수 또는 해외인턴쉽 | 125 | 28.2  | 65  | 14.7  | 63  | 14.3  | 568      |
| 봉사활동            | 5   | 1.1   | 20  | 4.5   | 27  | 6.1   | 82       |
| 진로선택            | 62  | 14.0  | 72  | 16.3  | 70  | 15.9  | 400      |
| 기타              | 2   | 0.5   | 2   | 0.5   | 4   | 0.9   | 14       |
| 계               | 444 | 100.0 | 442 | 100.0 | 440 | 100.0 |          |

### 9) 제도 및 시설에 대한 만족도

여학생들이 본교의 각종 제도 및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약간 만족하는 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sup>2)</sup>. 구체적으로 강의시설(평균: 2.30)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도서관시설(평균: 2.32), 장학금제도(평균: 2.33), 복지시설(평균: 2.62), 취업지원제도(평균: 2.68)의 순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제도 가운데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복지시설과 취업지원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① 매우 만족, ② 만족하는 편, ③ 그저 그렇다,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과 같은 5점 척도의 문항에서는 중간값이 3이므로 평균 비교를 통하여 평균값이 3보다 작을 때는 ①의 방향으로, 평균값이 3보다 클 때는 ⑤의 방향으로 해석함. 즉, 1점에 가까울수록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기 때문에 제도 및 시설 만족도는 2점에서 3점사이로 약간 만족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하 5점 척도의 문항에서도 같이 적용함.

〈표 3-9〉 현재 필요한 정보

| 구 분    | 매우 만족 |       | 만족하는 편 |       | 그저 그렇다 |       | 불만족 |       | 매우 불만족 |       | 평균   |
|--------|-------|-------|--------|-------|--------|-------|-----|-------|--------|-------|------|
|        | 응답수   | 비율(%) | 응답수    | 비율(%) | 응답수    | 비율(%) | 응답수 | 비율(%) | 응답수    | 비율(%) |      |
| 강의시설   | 50    | 11.4  | 241    | 54.8  | 117    | 26.6  | 29  | 6.6   | 3      | 0.7   | 2.30 |
| 도서관시설  | 51    | 11.6  | 234    | 53.2  | 120    | 27.3  | 31  | 7.0   | 4      | 0.9   | 2.32 |
| 복지시설   | 35    | 8.0   | 161    | 36.6  | 189    | 43.0  | 48  | 10.9  | 7      | 1.6   | 2.62 |
| 장학금제도  | 60    | 13.6  | 213    | 48.3  | 133    | 30.2  | 32  | 7.3   | 3      | 0.7   | 2.33 |
| 취업지원제도 | 27    | 6.1   | 142    | 32.2  | 222    | 50.3  | 43  | 9.8   | 7      | 1.6   | 2.68 |

## 10) 소결

첫째, 제주대학교 재학중인 여학생들은 본교의 평판 및 이미지와 본교 학생이 된 것에 대해 비교적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공 선택 동기는 적성과 흥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적 때문이라는 응답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둘째, 대학 수업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발표 및 토론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여대생들이 학업 외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활동으로는 친구들과의 만남, 아르바이트, 공부/독서, 이성교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재 가장 필요한 정보는 진로 및 취업문제, 전공학과의 특성과 전망 등 향후 진로에 대한 정보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실제 대학생활에서 하고 싶은 일은 취업과 관련된 진로선택이나 고시/자격시험 준비보다는 해외어학연수 또는 해외인턴쉽, 깊이 있는 전공 공부, 폭넓은 대인관계 등으로 나타나 학생들이 취업고민을 하면서도 대학생활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여대생들은 제주대학교의 각종 제도나 시설에 대해서는 5개 항목 모두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강의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복지시설 및 취업지원제도에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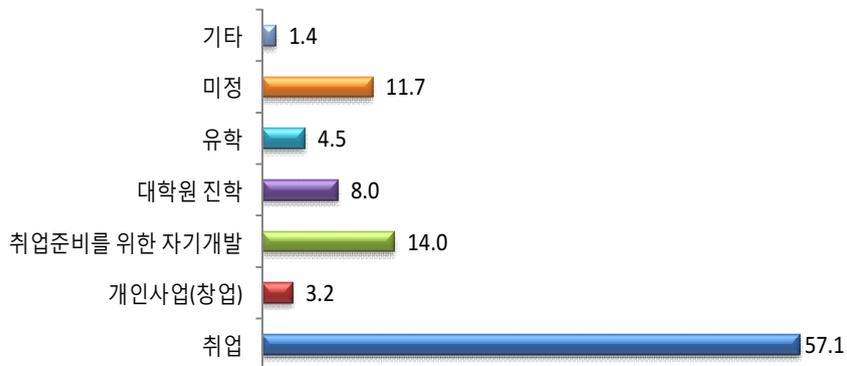
## 2. 진로 · 취업 분야

### 1) 졸업 후 진로계획

졸업 후 진로계획에 대해서는 57.1%가 ‘취업’하겠다고 응답하였고, 42.9%는 졸업 후 취업하지 않고, 자기개발, 대학원 진학, 유학 등을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계획이 취업이 아니라고 응답한 여대생들은 졸업 후 ‘취업준비를 위한 자기개발(14.0%)’, ‘미정(11.7%)’, ‘대학원 진학(8.0%)’, ‘유학(4.5%)’, ‘창업 등 개인사업(3.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대생 10명 중 1명 이상이 졸업 후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향후 개선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3-10〉 졸업 후 진로계획

| 구 분           | 응답수 | 비율(%) |
|---------------|-----|-------|
| 취업            | 253 | 57.1  |
| 개인사업(창업)      | 14  | 3.2   |
| 취업준비를 위한 자기개발 | 62  | 14.0  |
| 대학원 진학        | 36  | 8.0   |
| 유학            | 20  | 4.5   |
| 미정            | 52  | 11.7  |
| 기타            | 6   | 1.4   |
| 계             | 443 | 100.0 |



〈그림 3-6〉 졸업 후 진로계획

## 2) 진로선택 시기

진로선택 시기로는 ‘3학년 1학기 쯤’이라는 응답이 23.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3학년 2학기 쯤(18.2%)’, ‘2학년 1학기 쯤(15.1%)’, ‘2학년 2학기 쯤(1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과 비교(3학년 2학기쯤-20.6%, 3학년 1학기쯤-20.2%, 2학년 2학기쯤-15.5%, 2학년 1학기쯤-14.2%)할 때 진로선택에 대한 고민시기가 조금 앞당겨졌음을 알 수 있으며, 학교 차원에서 2학년 시기부터는 진로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지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3-11〉 진로 선택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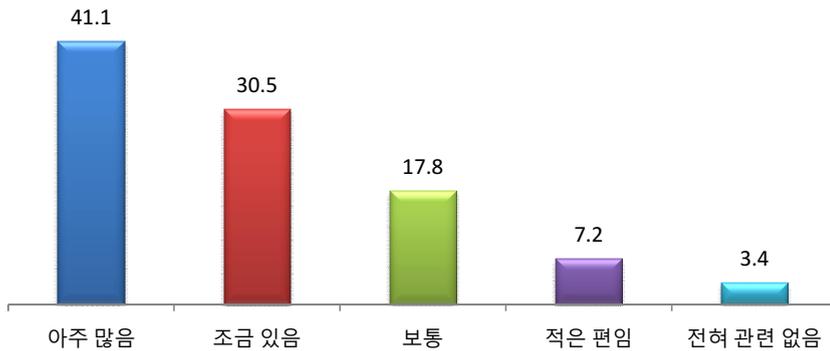
| 구 분      | 응답수 | 비율(%) |
|----------|-----|-------|
| 대학 입학 전  | 39  | 8.8   |
| 1학년 1학기쯤 | 8   | 1.8   |
| 1학년 2학기쯤 | 27  | 6.1   |
| 2학년 1학기쯤 | 67  | 15.1  |
| 2학년 2학기쯤 | 63  | 14.2  |
| 3학년 1학기쯤 | 106 | 23.9  |
| 3학년 2학기쯤 | 81  | 18.2  |
| 4학년 1학기쯤 | 38  | 8.6   |
| 4학년 2학기쯤 | 9   | 2.0   |
| 대학 졸업 후  | 6   | 1.4   |
| 계        | 444 | 100.0 |

## 3) 진로와 전공의 관련

본인이 선택한 진로와 전공의 관련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약 71.6%의 학생이 관련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관련이 없다고 대답한 학생은 10.6%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도(관련이 아주 많다-36.5%, 관련이 조금 있다-34.3%, 보통이다-17.8%, 관련이 적은 편이다-6.9%, 전혀 관련이 없다-4.5%)에 비해 진로와 전공과의 관련성이 약간 높아진 결과로서, 전공 선택시 진로를 조금 더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12〉 진로와 현재의 전공 관련 정도

| 구 분      | 응답수 | 비율(%) |
|----------|-----|-------|
| 아주 많음    | 182 | 41.1  |
| 조금 있음    | 135 | 30.5  |
| 보통       | 79  | 17.8  |
| 적은 편임    | 32  | 7.2   |
| 전혀 관련 없음 | 15  | 3.4   |
| 계        | 443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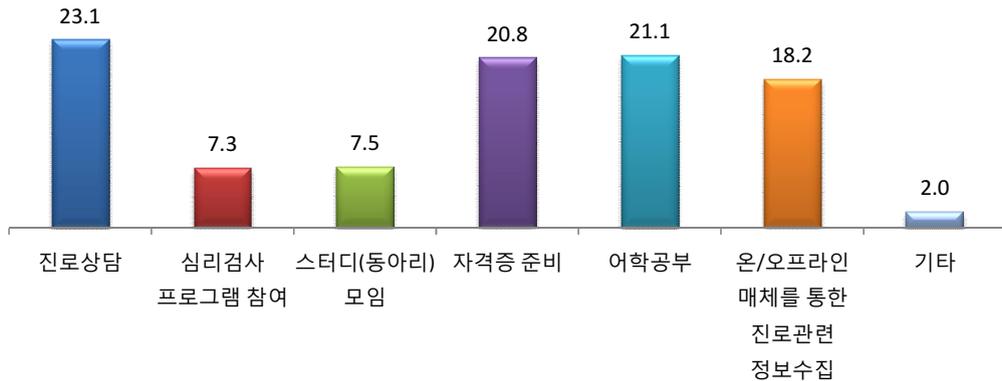
〈그림 3-7〉 진로와 전공의 관련

#### 4) 진로선택을 위한 활동

진로선택을 위한 활동으로 여학생들은 ‘진로상담(23.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어학공부(21.1%)’, ‘자격증 준비(20.8%)’,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진로관련 정보수집(18.2%)’, ‘스터디(동아리) 모임(7.5%)’, ‘심리검사 프로그램 참여(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도의 결과(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진로관련 정보수집(30.6%), 진로관련 교과목 수강(25.7%), 진로상담(19.2%), 진로검사 프로그램 참여(19.0%))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진로상담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표 3-13〉 진로를 선택하기 위한 활동(복수응답)

| 구 분                     | 응답수 | 비율(%) |
|-------------------------|-----|-------|
| 진로상담                    | 170 | 23.1  |
| 심리검사 프로그램 참여            | 54  | 7.3   |
| 스터디(동아리) 모임             | 55  | 7.5   |
| 자격증 준비                  | 153 | 20.8  |
| 어학공부                    | 155 | 21.1  |
|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진로관련 정보수집 | 134 | 18.2  |
| 기타                      | 15  | 2.0   |
| 계                       | 736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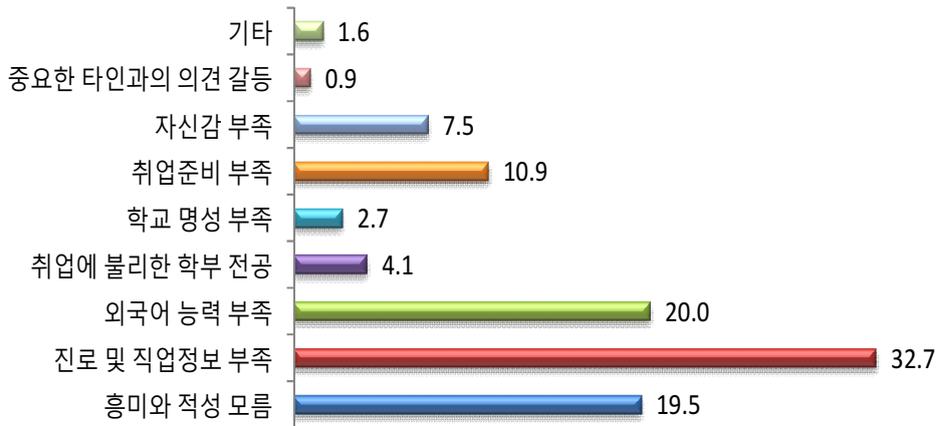
〈그림 3-8〉 진로를 선택하기 위한 활동

### 5) 진로선택의 애로사항

진로선택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32.7%의 학생이 ‘진로 및 직업정보의 부족’을 들었으며, 다음으로 ‘외국어 능력 부족(20.0%)’, ‘흥미와 적성 모름(19.5%)’, ‘취업준비 부족(10.9%)’, ‘자신감 부족(7.5%)’, ‘취업에 불리한 학부 전공(4.1%)’, ‘학교 명성 부족(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0명 중 2명 정도는 흥미와 적성을 몰라서 진로선택을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개선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

〈표 3-14〉 진로선택의 어려운 점

| 구 분            | 응답수 | 비율(%) |
|----------------|-----|-------|
| 흥미와 적성 모름      | 86  | 19.5  |
|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 144 | 32.7  |
| 외국어 능력 부족      | 88  | 20.0  |
| 취업에 불리한 학부 전공  | 18  | 4.1   |
| 학교 명성 부족       | 12  | 2.7   |
| 취업준비 부족        | 48  | 10.9  |
| 자신감 부족         | 33  | 7.5   |
| 중요한 타인과의 의견 갈등 | 4   | 0.9   |
| 기타             | 7   | 1.6   |
| 계              | 440 | 100.0 |



〈그림 3-9〉 진로선택의 어려운 점

진로선택시 어려운 점에 대해 단과대학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진로 및 직업정보가 부족하다는 응답은 해양과학대학(53.8%), 생명자원과학대학(48.0%), 사회과학대학(43.8%), 예술디자인대학(42.9%)의 순으로 나타났고, 외국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사회과학대학(31.3%), 경상대학(25.0%), 공과대학(24.2%), 해양과학대학(23.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흥미와 적성을 모른다는 응답은 간호대학(28.0%), 수의대학(25.0%), 경상대학(23.9%), 인문대학(23.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5〉 대학별·학년별 진로 선택 시 어려운 점

| 구 분                 | 대 학 별 |       |       |       |       |       |       |       |       |       |       |       | 학 년 별 |       |       |       |       |
|---------------------|-------|-------|-------|-------|-------|-------|-------|-------|-------|-------|-------|-------|-------|-------|-------|-------|-------|
|                     | 인문대   | 사회대   | 경상대   | 사범대   | 생명대   | 해양대   | 자연대   | 공과대   | 수의대   | 간호대   | 예술대   | 교육대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
| 흥미와 적성을<br>모름       | 명     | 10    | 3     | 22    | 4     | 5     | 2     | 15    | 5     | 2     | 7     | 5     | 6     | 26    | 19    | 21    | 20    |
|                     | %     | 23.3  | 9.4   | 23.9  | 14.8  | 20.0  | 7.7   | 22.7  | 15.2  | 25.0  | 28.0  | 17.9  | 17.1  | 24.5  | 16.2  | 19.6  | 18.2  |
| 진로, 직업<br>정보 부족     | 명     | 11    | 14    | 23    | 11    | 12    | 14    | 21    | 10    | 2     | 7     | 12    | 7     | 34    | 40    | 33    | 37    |
|                     | %     | 25.6  | 43.8  | 25.0  | 40.7  | 48.0  | 53.8  | 31.8  | 30.3  | 25.0  | 28.0  | 42.9  | 20.0  | 32.1  | 34.2  | 30.8  | 33.6  |
| 외국어 능력<br>부족        | 명     | 8     | 10    | 23    | 3     | 4     | 6     | 13    | 8     | 1     | 3     | 5     | 4     | 20    | 25    | 20    | 23    |
|                     | %     | 18.6  | 31.3  | 25.0  | 11.1  | 16.0  | 23.1  | 19.7  | 24.2  | 12.5  | 12.0  | 17.9  | 11.4  | 18.9  | 21.4  | 18.7  | 20.9  |
| 취업에 불리한<br>학부 전공    | 명     | 4     | 1     | 1     | 3     | 2     | 1     | 3     | 1     | -     | -     | 1     | 1     | 3     | 2     | 5     | 8     |
|                     | %     | 9.3   | 3.1   | 1.1   | 11.1  | 8.0   | 3.8   | 4.5   | 3.0   | -     | -     | 3.6   | 2.9   | 2.8   | 1.7   | 4.7   | 7.3   |
| 학교 명성<br>부족         | 명     | 1     | 1     | 3     | 1     | -     | -     | 2     | 2     | -     | 1     | 1     | -     | 5     | 2     | 3     | 2     |
|                     | %     | 2.3   | 3.1   | 3.3   | 3.7   | -     | -     | 3.0   | 6.1   | -     | 4.0   | 3.6   | -     | 4.7   | 1.7   | 2.8   | 1.8   |
| 취업준비 부족             | 명     | 7     | 2     | 11    | 3     | -     | 2     | 10    | 4     | 1     | 2     | -     | 6     | 6     | 13    | 16    | 13    |
|                     | %     | 16.3  | 6.3   | 12.0  | 11.1  | -     | 7.7   | 15.2  | 12.1  | 12.5  | 8.0   | -     | 17.1  | 5.7   | 11.1  | 15.0  | 11.8  |
| 자신감 부족              | 명     | 2     | 1     | 5     | 1     | 2     | 1     | 1     | 3     | 1     | 5     | 4     | 7     | 6     | 12    | 8     | 7     |
|                     | %     | 4.7   | 3.1   | 5.4   | 3.7   | 8.0   | 3.8   | 1.5   | 9.1   | 12.5  | 20.0  | 14.3  | 20.0  | 5.7   | 10.3  | 7.5   | 6.4   |
| 중요한<br>타인과의<br>의견갈등 | 명     | -     | -     | 1     | -     | -     | -     | 1     | -     | 1     | -     | -     | 1     | 3     | 1     | -     | -     |
|                     | %     | -     | -     | 1.1   | -     | -     | -     | 1.5   | -     | 12.5  | -     | -     | 2.9   | 2.8   | 0.9   | -     | -     |
| 기타                  | 명     | -     | -     | 3     | 1     | -     | -     | -     | -     | -     | -     | -     | 3     | 3     | 3     | 1     | -     |
|                     | %     | -     | -     | 3.3   | 3.7   | -     | -     | -     | -     | -     | -     | -     | 8.6   | 2.8   | 2.6   | 0.9   | -     |
| 전체                  | 명     | 43    | 32    | 92    | 27    | 25    | 26    | 66    | 33    | 8     | 25    | 28    | 35    | 106   | 117   | 107   | 110   |
|                     | %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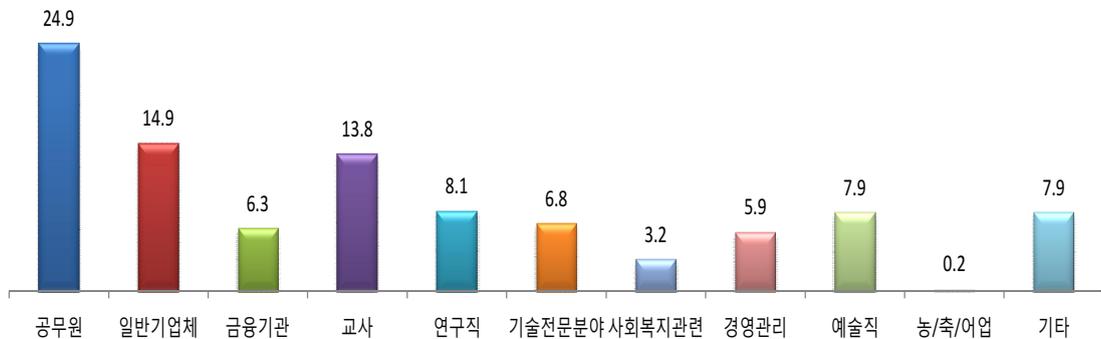
진로선택시 어려운 점에 대해 학년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진로 및 직업정보가 부족하다는 응답은 2학년(34.2%), 4학년(33.6%), 1학년(32.1%), 3학년(30.8%)의 순으로 나타났고, 외국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응답에 대해서도 2학년(21.4%), 4학년(20.9%), 1학년(18.9%), 3학년(18.7%)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흥미와 적성을 모른다는 응답은 1학년(24.5%), 3학년(19.6%), 4학년(18.2%), 2학년(16.2%)의 순으로 나타났고, 취업준비가 부족하다는 응답은 3학년(15.0%), 4학년(11.8%), 2학년(11.1%), 1학년(5.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학년 재학생들이 진로, 취업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6) 졸업 후 원하는 직종

졸업 후, 장래에 원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공무원(24.9%)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일반기업체(14.9%), 교사(13.8%), 연구직(8.1%), 예술직(7.9%), 기술전문분야(6.8%), 금융기관(6.3%), 경영관리(5.9%), 사회복지관련(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6〉 졸업 후 원하는 직종

| 구 분    | 응답수 | 비율(%) |
|--------|-----|-------|
| 공무원    | 110 | 24.9  |
| 일반기업체  | 66  | 14.9  |
| 금융기관   | 28  | 6.3   |
| 교사     | 61  | 13.8  |
| 연구직    | 36  | 8.1   |
| 기술전문분야 | 30  | 6.8   |
| 사회복지관련 | 14  | 3.2   |
| 경영관리   | 26  | 5.9   |
| 예술직    | 35  | 7.9   |
| 농/축/어업 | 1   | 0.2   |
| 기타     | 35  | 7.9   |
| 계      | 442 | 100.0 |



〈그림 3-10〉 졸업 후 원하는 직종

### 7) “괜찮은 일자리” 판단기준

“괜찮은 일자리”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정규직 여부 등의 고용 안정성이 35.9%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적성, 흥미, 성취감 등의 자아실현(18.5%), 근로시간, 복리후생, 작업환경 등의 근무여건(17.6%), 임금(14.4%), 전문성(6.5%), 발전 가능성(3.4%), 사회적 인정(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대생들이 임금이나 발전가능성, 사회적 인정 등에 비해 안정적이면서 자아실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로 판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7〉 “괜찮은 일자리” 판단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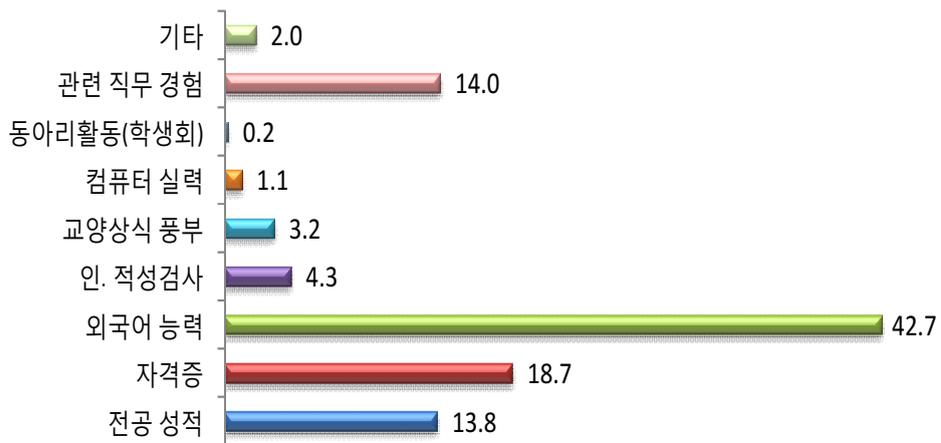
| 구 분                    | 응답수 | 비율(%) |
|------------------------|-----|-------|
| 임금                     | 64  | 14.4  |
| 고용 안정성(정규직 여부 등)       | 159 | 35.9  |
| 전문성                    | 29  | 6.5   |
| 사회적 인정                 | 14  | 3.2   |
| 발전 가능성                 | 15  | 3.4   |
| 자아실현(적성, 흥미, 성취감)      | 82  | 18.5  |
| 근무여건(근로시간, 복리후생, 작업환경) | 78  | 17.6  |
| 기타                     | 2   | 0.5   |
| 계                      | 443 | 100.0 |

### 8) 취업준비 관련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항목

취업준비 관련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외국어 능력(42.7%)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격증(18.7%), 관련 직무 경험(14.0%), 전공 성적(13.8%), 인·적성 검사(4.3%), 교양상식 풍부(3.2%), 컴퓨터 실력(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여학생들이 자신의 외국어 능력이 희망하는 영역에 취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취업현장에서 외국어 능력을 중시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8〉 취업준비 관련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항목

| 구 분        | 응답수 | 비율(%) |
|------------|-----|-------|
| 전공 성적      | 61  | 13.8  |
| 자격증        | 83  | 18.7  |
| 외국어 능력     | 189 | 42.7  |
| 인·적성검사     | 19  | 4.3   |
| 교양상식 풍부    | 14  | 3.2   |
| 컴퓨터 실력     | 5   | 1.1   |
| 동아리활동(학생회) | 1   | 0.2   |
| 관련 직무 경험   | 62  | 14.0  |
| 기타         | 9   | 2.0   |
| 계          | 443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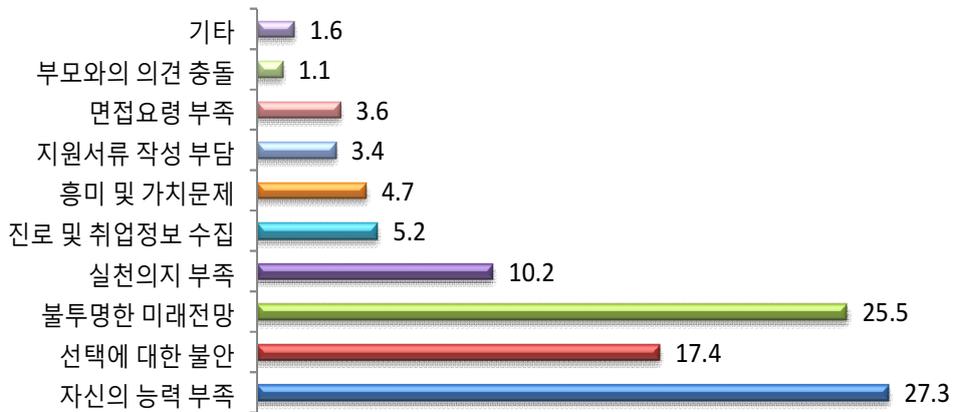
〈그림 3-11〉 취업준비 관련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항목

### 9) 취업 관련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

취업과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능력부족(27.3%)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불투명한 미래전망(25.5%), 선택에 대한 불안(17.4%), 실천의 지 부족(10.2%), 진로 및 취업정보 수집(5.2%), 흥미 및 가치문제(4.7%), 면접요령 부족(3.6%), 지원서류 작성 부담(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9〉 취업 관련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

| 구 분          | 응답수 | 비율(%) |
|--------------|-----|-------|
| 자신의 능력 부족    | 121 | 27.3  |
| 선택에 대한 불안    | 77  | 17.4  |
| 불투명한 미래전망    | 113 | 25.5  |
| 실천의지 부족      | 45  | 10.2  |
| 진로 및 취업정보 수집 | 23  | 5.2   |
| 흥미 및 가치문제    | 21  | 4.7   |
| 지원서류 작성 부담   | 15  | 3.4   |
| 면접요령 부족      | 16  | 3.6   |
| 부모와의 의견 충돌   | 5   | 1.1   |
| 기타           | 7   | 1.6   |
| 계            | 443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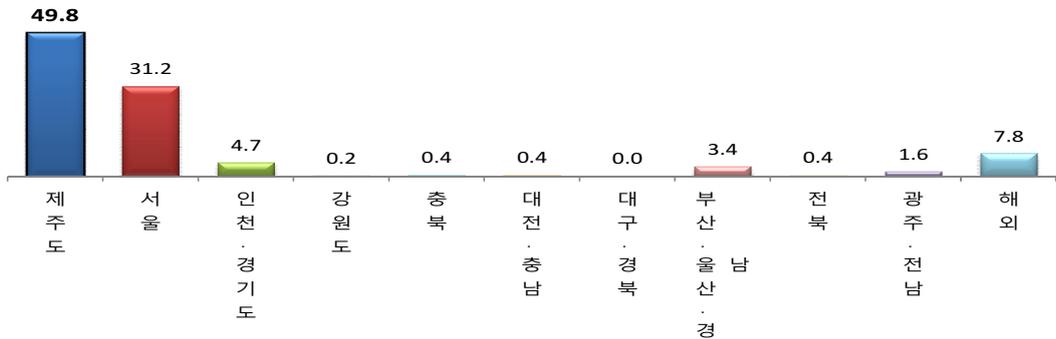
〈그림 3-12〉 취업 관련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

### 10) 취업 희망 지역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으로는 제주도(49.8%)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서울(31.2%), 해외(7.8%), 인천·경기도(4.7%), 부산·울산·경남(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0〉 취업 희망 지역

| 구 분      | 응답수 | 비율(%) |
|----------|-----|-------|
| 제주도      | 222 | 49.8  |
| 서울       | 139 | 31.2  |
| 인천·경기도   | 21  | 4.7   |
| 강원도      | 1   | 0.2   |
| 충북       | 2   | 0.4   |
| 대전·충남    | 2   | 0.4   |
| 대구·경북    | -   | -     |
| 부산·울산·경남 | 15  | 3.4   |
| 전북       | 2   | 0.4   |
| 광주·전남    | 7   | 1.6   |
| 해외       | 35  | 7.8   |
| 계        | 446 | 100.0 |



〈그림 3-13〉 취업 희망 지역

도내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도내에 취업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거주지와 가까워서(52.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어서(29.7%),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이 제주에 있어서(7.8%), 도외취업이 불안하기 때문에(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거주지와 가까워서-38.1%,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어서-42.1%,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이 제주에 있어서-6.4%, 도외취업이 불안하기 때문에-8.4%)과 비교할 때, 여대생들에게 거주지와 취업지의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부상되었고, 도외 이전기업의 증가 등으로 인해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이 지난해보다 많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21〉 도내에 취업하고 싶은 이유

| 구 분                  | 응답수 | 비율(%) |
|----------------------|-----|-------|
| 거주지와 가까워서            | 115 | 52.5  |
|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어서      | 65  | 29.7  |
| 도외취업이 불안하기 때문에       | 11  | 5.0   |
|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이 제주에 있어서 | 17  | 7.8   |
| 기타                   | 11  | 5.0   |
| 계                    | 219 | 100.0 |



〈그림 3-14〉 도내에 취업하고 싶은 이유

도외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도외로 취업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도내 기업에 비해 더 나은 발전 가능성(42.3%)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도내 기업에 비해 많은 일자리(19.0%), 도내 기업에 비해 많은 임금(16.2%), 도내 기업에 비해 더 나은 복리후생(1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2〉 도외로 취업하고 싶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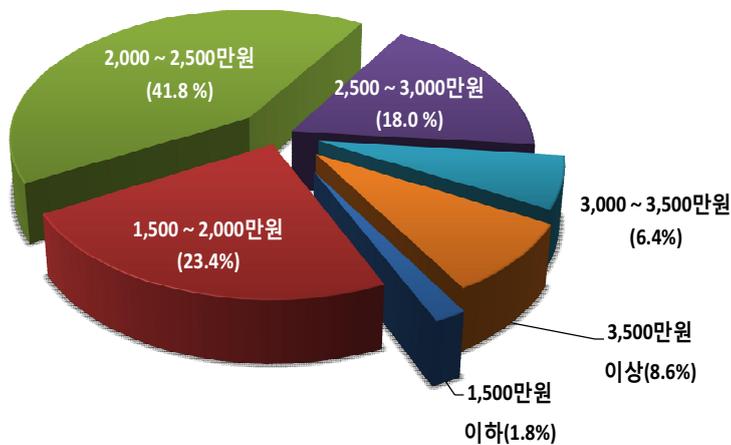
| 구 분                   | 응답수 | 비율(%) |
|-----------------------|-----|-------|
| 도내 기업에 비해 많은 임금       | 23  | 16.2  |
| 도내 기업에 비해 더 나은 복리후생   | 18  | 12.7  |
| 도내 기업에 비해 많은 일자리      | 27  | 19.0  |
| 도내 기업에 비해 더 나은 발전 가능성 | 60  | 42.3  |
| 기타                    | 14  | 9.9   |
| 계                     | 142 | 100.0 |

### 11) 취업 후 희망하는 초임 연봉

취업 후 희망하는 초임 연봉은 ‘2,000~2,500만원’이 41.8%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1,500만~2,000만원(23.4%)’, ‘2,500~3,000만원(18.0%)’, ‘3,500만원 이상(8.6%)’, ‘3,000~3,500만원(6.4%)’, ‘1,500만원 이하(1.8%)’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과 유사한 결과(‘2,000~2,500만원’-41.6%, ‘1,500만~2,000만원’-25.1%, ‘2,500~3,000만원’-18.0%, ‘3,000~3,500만원’-6.6%, ‘3,500만원 이상’-6.4%, ‘1,500만원 이하’-2.3%)을 보이고 있으며, 가장 희망하는 초임 연봉 수준이 약 월 2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난 것은 제주지역의 낮은 임금수준을 반영하는 결과로 판단된다.

〈표 3-23〉 취업 후 희망하는 초임 연봉

| 구 분             | 응답수 | 비율(%) |
|-----------------|-----|-------|
| 1,500만원 이하      | 8   | 1.8   |
| 1,500 ~ 2,000만원 | 103 | 23.4  |
| 2,000 ~ 2,500만원 | 184 | 41.8  |
| 2,500 ~ 3,000만원 | 79  | 18.0  |
| 3,000 ~ 3,500만원 | 28  | 6.4   |
| 3,500만원 이상      | 38  | 8.6   |
| 계               | 440 | 100.0 |



## 12) 취업 또는 채용을 위한 정보 획득 경로

취업 또는 채용을 위한 정보를 주로 얻는 곳에 대해서는 ‘학과 선배’라는 응답이 27.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친인척 등 주변 네트워크(22.3%)’, ‘전공 교수님(18.2%)’, ‘취업종합정보서비스(교내 취업전략본부: 1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여대생들은 개인관계를 이용한 취업정보 획득이 대부분으로 나타났고, 온라인 취업정보 사이트 이용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2014년 조사결과(취업종합정보서비스-16.1%, 노동부 워크넷-13.0%, 사기업 고용정보업체-17.8%, 친인척 등 개인관계 이용-38.6%)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3-24〉 취업 또는 채용을 위한 정보 획득 경로

| 구 분                   | 응답수 | 비율(%) |
|-----------------------|-----|-------|
| 전공 교수님                | 80  | 18.2  |
| 취업종합정보서비스(교내 취업전략본부)  | 63  | 14.4  |
| 학과 선배                 | 119 | 27.1  |
| 노동부 워크넷               | 15  | 3.4   |
| 사기업 고용정보업체(사람인, 인쿠르트) | 25  | 5.7   |
| 친인척 등 주변 네트워크         | 98  | 22.3  |
| 기타                    | 39  | 8.9   |
| 계                     | 439 | 100.0 |



〈그림 3-15〉 취업 또는 채용을 위한 정보 획득 경로

### 13) 소결

첫째, 제주대학교 여학생들은 졸업 후 진로계획에 대해서 취업(57.1%)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졸업 후 진로 선택 시기로 '3학년 1-2학기쯤, 2학년1-2학기쯤'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졸업 후 진로계획이 취업이 아니라고 응답한 여대생들은 '취업준비를 위한 자기 개발', '대학원 진학', '유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본인이 선택한 진로와 전공에 대해서는 71.6%의 여학생들이 관련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진로선택을 위해서는 진로상담 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지만, 진로 및 직업 정보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졸업 후 원하는 직종으로는 공무원이 가장 많았고, 괜찮은 일자리 판단 기준으로는 고용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자아실현(적성, 흥미, 성취감), 근무여건(근로시간, 복리후생, 작업환경, 분위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취업준비와 관련하여 외국어 능력이 가장 필요한 항목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자격증, 관련 직무 경험, 전공 성적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능력부족, 불투명한 미래전망, 선택에 대한 불안 등의 취업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취업 희망 지역으로는 제주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서울, 해외, 인천/경기도, 부산/울산/경남 순으로 나타났다. 도내에 취업하고 싶은 이유로는 거주지와 가까워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어서도 도내 취업 희망 이유 가운데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도외로 취업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는 도내 기업에 비해 더 나은 발전 가능성, 도내 기업에 비해 많은 일자리 등을 뽑았으며, 취업 후 희망하는 연봉에서는 2,000~2,500만원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여섯째, 취업 또는 채용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에 대해서는 학교 선배, 친인척 등 주변 네트워크, 전공 교수님, 취업종합정보서비스(교내 취업전략본부)의 순으로 나타나 개인적인 관계로 인한 정보 획득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취업 정보 획득의 중요성 교육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3. 학생상담센터인식 및 상담관련

#### 1) 본교 학생상담센터에 대한 인지도

본교 학생상담센터에 대한 인지도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55.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들어본 적 있으나, 이용한 적은 없다(37.2%)’, ‘이용해 본 적이 있다(7.4%)’의 순으로 나타나 학생상담센터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도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3-25〉 학생상담센터에 대한 인지도

| 구 분                  | 응답수 | 비율(%) |
|----------------------|-----|-------|
| 이용해본 적이 있다           | 33  | 7.4   |
| 들어본 적 있으나, 이용한 적은 없다 | 165 | 37.2  |
| 들어본 적이 없다            | 246 | 55.4  |
| 계                    | 444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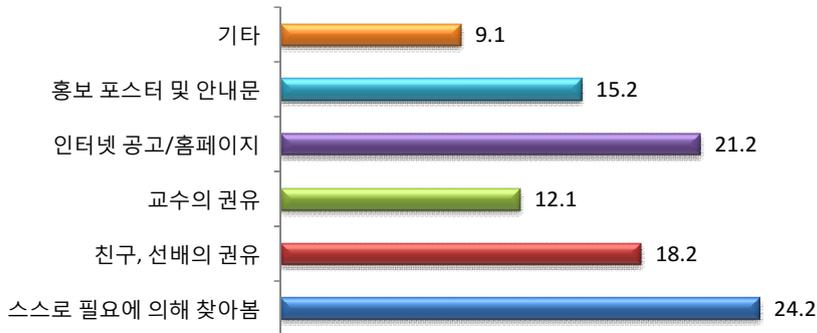


〈그림 3-16〉 취업 또는 채용을 위한 정보 획득 경로

본교 학생상담센터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 응답자에게 이용경위를 질문한 결과, ‘스스로 필요에 의해 찾아봄’이 2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인터넷 공고/홈페이지(21.2%)’, ‘친구, 선배의 권유(18.2%)’, ‘홍보 포스터 및 안내문(15.2%)’, ‘교수의 권유(1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6〉 학생상담센터 이용 경위

| 구 분            | 응답수 | 비율(%) |
|----------------|-----|-------|
| 스스로 필요에 의해 찾아봄 | 8   | 24.2  |
| 친구, 선배의 권유     | 6   | 18.2  |
| 교수의 권유         | 4   | 12.1  |
| 인터넷 공고/홈페이지    | 7   | 21.2  |
| 홍보 포스터 및 안내문   | 5   | 15.2  |
| 기타             | 3   | 9.1   |
| 계              | 33  | 100.0 |



〈그림 3-17〉 학생상담센터 이용 경위

또한 본교 학생상담센터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 경우 만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이해’가 40.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진로, 적성 선택 도움(28.1%)’, ‘심리적 안정(2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7〉 학생상담센터 만족 부분

| 구 분          | 응답수 | 비율(%) |
|--------------|-----|-------|
| 자기이해         | 13  | 40.6  |
| 대인관계 개선      | -   | -     |
| 심리적 안정감      | 8   | 25.0  |
| 진로, 적성선택 도움  | 9   | 28.1  |
| 스트레스 대처능력 도움 | -   | -     |
| 문제행동 개선      | 1   | 3.1   |
| 기타           | 1   | 3.1   |
| 계            | 32  | 100.0 |

평소 대학 학생상담센터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모든 학생들이 자유로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곳(44.8%)’, ‘개인적인 고민이나 문제가 있는 학생들만 이용하는 곳(33.3%)’, ‘다른 학생은 이용해도 나는 방문이 꺼려지는 곳(1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8〉 학생상담센터에 대한 인식

| 구 분                          | 응답수 | 비율(%) |
|------------------------------|-----|-------|
| 개인적인 고민이나 문제가 있는 학생들만 이용하는 곳 | 64  | 33.3  |
| 모든 학생들이 자유로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곳    | 86  | 44.8  |
| 다른 학생은 이용해도 나는 방문이 꺼려지는 곳    | 35  | 18.2  |
| 기타                           | 7   | 3.6   |
| 계                            | 192 | 100.0 |

## 2) 문제를 의논하는 대상

평소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가장 많이 문제를 의논하는 대상으로는 친구가 55.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어머니(17.3%), 혼자 고민(10.8%), 형제/자매(5.2%), 교수님(3.6%), 아버지(2.5%), 상담센터 방문(1.6%), 친척(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9〉 문제를 의논하는 대상

| 구 분     | 응답수 | 비율(%) |
|---------|-----|-------|
| 상담센터 방문 | 7   | 1.6   |
| 교수님     | 16  | 3.6   |
| 친구      | 249 | 55.8  |
| 어머니     | 77  | 17.3  |
| 아버지     | 11  | 2.5   |
| 형제/자매   | 23  | 5.2   |
| 친척      | 2   | 0.4   |
| 혼자 고민   | 48  | 10.8  |
| 기타      | 13  | 2.9   |
| 계       | 446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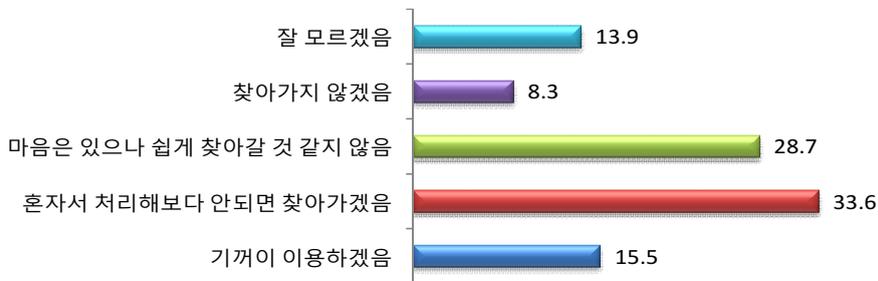
〈그림 3-18〉 문제를 의논하는 대상

### 3) 학생상담센터 이용 의향

만약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제주대학교 학생상담센터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혼자서 처리해보다 안되면 찾아가겠음’이라는 응답이 3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마음은 있으나 쉽게 찾아갈 것 같지 않음(28.7%)’, ‘기꺼이 이용하겠음(15.5%)’, ‘잘 모르겠음(13.9%)’, ‘찾아가지 않겠음(8.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0〉 학생상담센터 이용 의향

| 구분                     | 응답수 | 비율(%) |
|------------------------|-----|-------|
| 기꺼이 이용하겠음              | 69  | 15.5  |
| 혼자서 처리해보다 안되면 찾아가겠음    | 150 | 33.6  |
| 마음은 있으나 쉽게 찾아갈 것 같지 않음 | 128 | 28.7  |
| 찾아가지 않겠음               | 37  | 8.3   |
| 잘 모르겠음                 | 62  | 13.9  |
| 계                      | 446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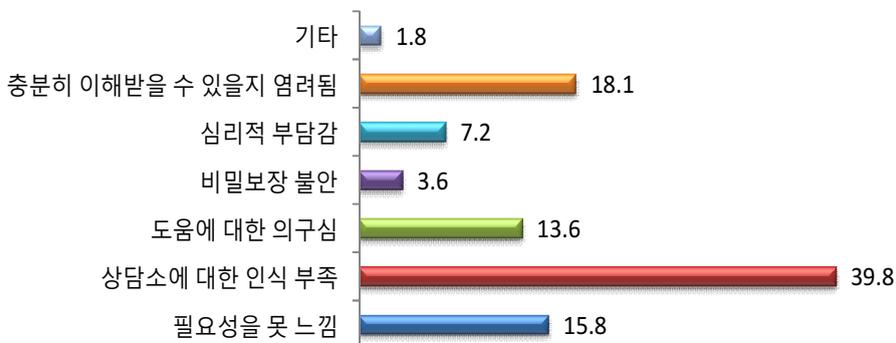
〈그림 3-18〉 문제를 의논하는 대상

#### 4) 학생상담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이유

학생상담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상담소에 대한 인식 부족’이 39.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충분히 이해받을 수 있을지 염려됨(18.1%)’, ‘필요성을 못 느낌(15.8%)’, ‘도움에 대한 의구심(13.6%)’, ‘심리적 부담감(7.2%)’, ‘비밀보장 불안(3.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대생들은 현재 학생상담센터 이용에 부담을 느끼거나, 도움 정도에 대한 신뢰수준이 낮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3-31〉 학생상담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이유

| 구 분                | 응답수 | 비율(%) |
|--------------------|-----|-------|
| 필요성을 못 느낌          | 70  | 15.8  |
| 상담소에 대한 인식 부족      | 176 | 39.8  |
| 도움에 대한 의구심         | 60  | 13.6  |
| 비밀보장 불안            | 16  | 3.6   |
| 심리적 부담감            | 32  | 7.2   |
| 충분히 이해받을 수 있을지 염려됨 | 80  | 18.1  |
| 기타                 | 8   | 1.8   |
| 계                  | 442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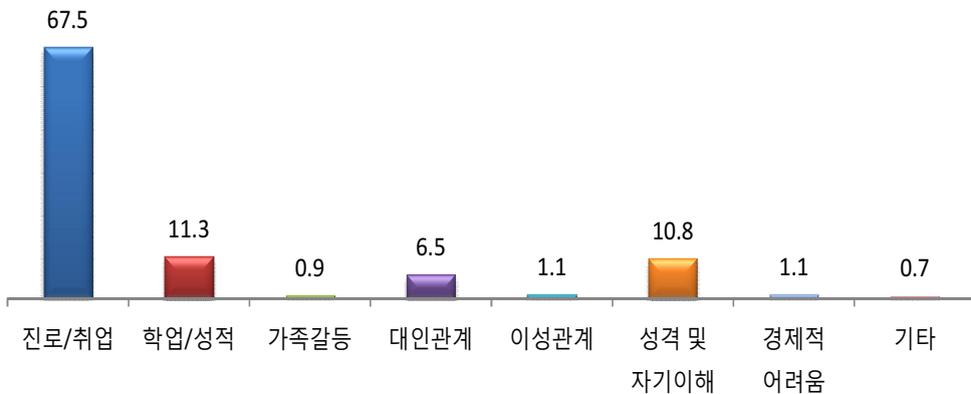
〈그림 3-19〉 학생상담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이유

### 5) 학생상담센터에서 개인상담 시 필요한 내용

학생상담센터에서 개인상담(1:1상담)을 받게 된다면 어떤 내용의 상담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진로/취업이 67.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학업/성적(11.3%), 성격 및 자기이해(10.8%), 대인관계(6.5%), 이성관계와 경제적 어려움(각각 1.1%), 가족갈등(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대생들의 고민영역이 진로/취업 및 성적 외에도 자기이해, 대인관계 등 다양한 부분에 걸쳐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표 3-32〉 학생상담센터에서 개인상담 시 필요한 내용

| 구 분       | 응답수 | 비율(%) |
|-----------|-----|-------|
| 진로/취업     | 299 | 67.5  |
| 학업/성적     | 50  | 11.3  |
| 가족갈등      | 4   | 0.9   |
| 대인관계      | 29  | 6.5   |
| 이성관계      | 5   | 1.1   |
| 성격 및 자기이해 | 48  | 10.8  |
| 경제적 어려움   | 5   | 1.1   |
| 기타        | 3   | 0.7   |
| 계         | 443 | 100.0 |



〈그림 3-20〉 학생상담센터에서 개인상담 시 필요한 내용

## 6) 학생상담센터에서 제공해 주었으면 하는 서비스

여학생들이 학생상담센터에서 제공해 주었으면 하는 서비스에 대한 우선순위는 <표 3-33>과 같다. 우선순위별 가중치를 두어 분석한 결과 ‘개인적 고민에 대한 전문적 상담’이 가장 희망하는 서비스로 분석되었고, 다음으로 ‘각종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 ‘특강 및 워크샵’, ‘다양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대학생활에 관한 조사 연구결과 정보제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3> 학생상담센터에서 제공해 주었으면 하는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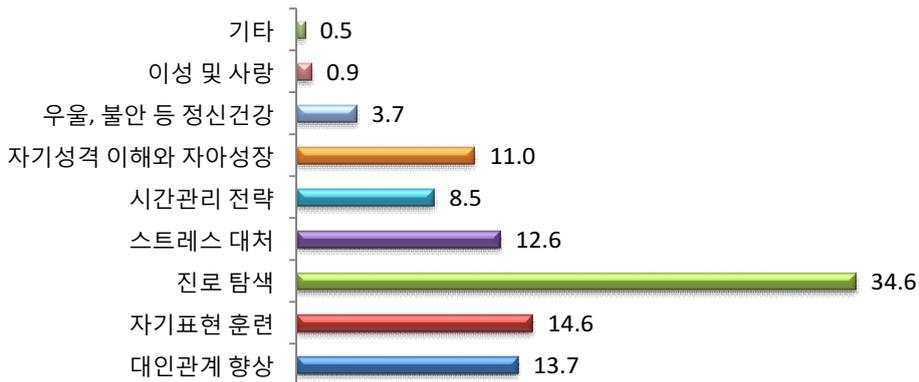
| 구분                    |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전체 점수 |
|-----------------------|-----|-------|-----|-------|-----|-------|-------|
|                       | 응답수 | 비율(%) | 응답수 | 비율(%) | 응답수 | 비율(%) |       |
| 개인적 고민에 대한 전문적 상담     | 193 | 43.6  | 126 | 28.9  | 57  | 13.2  | 888   |
| 다양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 30  | 6.8   | 67  | 15.4  | 83  | 19.3  | 307   |
| 각종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       | 138 | 31.2  | 121 | 27.8  | 82  | 19.0  | 738   |
| 특강 및 워크샵              | 59  | 13.3  | 88  | 20.2  | 92  | 21.3  | 445   |
| 대학생활에 관한 조사 연구결과 정보제공 | 23  | 5.2   | 32  | 7.3   | 109 | 25.3  | 242   |
| 기타                    | -   | -     | 2   | 0.5   | 8   | 1.9   | 12    |
| 계                     | 443 | 100.0 | 436 | 100.0 | 431 | 100.0 |       |

## 7) 집단상담(소그룹상담) 참가 시 필요한 프로그램

집단상담(소그룹상담) 참가 시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진로 탐색’이 34.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기표현 훈련(14.6%)’, ‘대인관계 향상(13.7%)’, ‘스트레스 대처(12.6%)’, ‘자기성격 이해와 자아성장(11.0%)’, ‘시간관리 전략(8.5%)’,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3.7%)’, ‘이성 및 사랑(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정보에서 진로, 취업 및 채용정보라고 응답한 부분과 대학 수업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발표 및 토론이라고 응답한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34〉 집단상담(소그룹상담) 참가 시 필요한 프로그램

| 구 분           | 응답수 | 비율(%) |
|---------------|-----|-------|
| 대인관계 향상       | 60  | 13.7  |
| 자기표현 훈련       | 64  | 14.6  |
| 진로 탐색         | 151 | 34.6  |
| 스트레스 대처       | 55  | 12.6  |
| 시간관리 전략       | 37  | 8.5   |
| 자기성격 이해와 자아성장 | 48  | 11.0  |
|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 16  | 3.7   |
| 이성 및 사랑       | 4   | 0.9   |
| 기타            | 2   | 0.5   |
| 계             | 437 | 100.0 |



〈그림 3-21〉 집단상담(소그룹상담) 참가 시 필요한 프로그램

### 8) 현재 대학생활에서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고민)

여학생들이 현재 대학생활에서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고민)에 대한 우선순위는 <표 3-35>와 같다. 우선순위별 가중치를 두어 분석한 결과 ‘학업 및 진로’가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대인관계’, ‘성격’, ‘외모’, ‘가정의 경제상태’, ‘건강’, ‘이성관계’, ‘부모 및 가족관계’, ‘흡연 및 약물’, ‘성문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들은 학업 및 진로가 가장 큰 고민인 가운데, 본인의 성격 및 외모, 대인관계, 이성관계, 가정의 경제상태 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35〉 현재 대학생활에서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고민)

| 구분        |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전체<br>접수 |
|-----------|-----|-------|-----|-------|-----|-------|----------|
|           | 응답수 | 비율(%) | 응답수 | 비율(%) | 응답수 | 비율(%) |          |
| 학업 및 진로   | 334 | 76.1  | 54  | 12.7  | 22  | 5.3   | 1,132    |
| 성격        | 31  | 7.1   | 82  | 19.3  | 70  | 17.0  | 327      |
| 외모        | 18  | 4.1   | 54  | 12.7  | 59  | 14.3  | 221      |
| 이성관계      | 6   | 1.4   | 25  | 5.9   | 39  | 9.5   | 107      |
| 대인관계      | 29  | 6.6   | 113 | 26.7  | 94  | 22.8  | 407      |
| 부모 및 가족관계 | 5   | 1.1   | 13  | 3.1   | 26  | 6.3   | 67       |
| 가정의 경제상태  | 8   | 1.8   | 40  | 9.4   | 33  | 8.0   | 137      |
| 성문제       | 1   | 0.2   | 2   | 0.5   | 5   | 1.2   | 12       |
| 건강        | 3   | 0.7   | 33  | 7.8   | 50  | 12.1  | 125      |
| 흡연 및 약물   | 1   | 0.2   | 5   | 1.2   | 2   | 0.5   | 15       |
| 기타        | 3   | 0.7   | 3   | 0.7   | 12  | 2.9   | 27       |
| 계         | 439 | 100.0 | 424 | 100.0 | 412 | 100.0 |          |

### 9) 최근 3개월간 주로 경험한 정서

최근 3개월간 주로 경험한 정서에 대해서는 ‘외로움, 불안, 분노, 우울과 무기력을 가끔 경험하지만 지낼만함’이 46.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구체적으로 경험한 정서에 대해서는 ‘우울과 무기력(24.9%)’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외로움(9.8%)’, ‘불안(9.6%)’, ‘분노(5.3%)’, ‘기타(4.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6〉 최근 3개월간 주로 경험한 정서

| 구분                  | 응답수 | 비율(%) |
|---------------------|-----|-------|
| 외로움                 | 43  | 9.8   |
| 불안                  | 42  | 9.6   |
| 분노                  | 23  | 5.3   |
| 우울과 무기력             | 109 | 24.9  |
| 위 정서를 가끔 경험하지만 지낼만함 | 202 | 46.1  |
| 기타                  | 19  | 4.3   |
| 계                   | 438 | 100.0 |

## 10) 소결

첫째, 평소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가장 많이 문제를 의논하는 대상으로는 친구(55.8%)로 나타났다. 제주대학교 여학생들의 학생상담센터에 대한 인지도에서 ‘이용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7.4%에 그쳤으며,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도 55.4%로 높게 나타나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상담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스스로 필요에 의해 찾아보거나 친구, 선배의 권유로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생상담센터 이용 후 ‘자기이해’ 부분에서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제주대학교 학생상담센터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혼자서 처리해보다 안되면 찾아가겠음’이라는 응답이 33.6%로 가장 높았고, ‘기꺼이 이용하겠음’은 15.5%에 불과하였다. 학생상담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상담소에 대한 인식 부족’이 39.8%로 가장 높게 나타나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상담센터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학생상담센터에서 개인상담(1:1상담)을 받게 된다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진로/취업(67.5%)으로 나타났고, 제공해 주었으면 하는 서비스로는 ‘개인적 고민에 대한 전문적 상담’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집단상담(소그룹상담) 참가 시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진로 탐색’이 34.6%로 가장 높게 나타나 본교 여학생들은 진로/취업 부분에서 상담을 가장 많이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여학생들이 현재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학업 및 진로’였으며, 최근 경험하는 정서에서는 우울과 무기력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외로움, 불안 등의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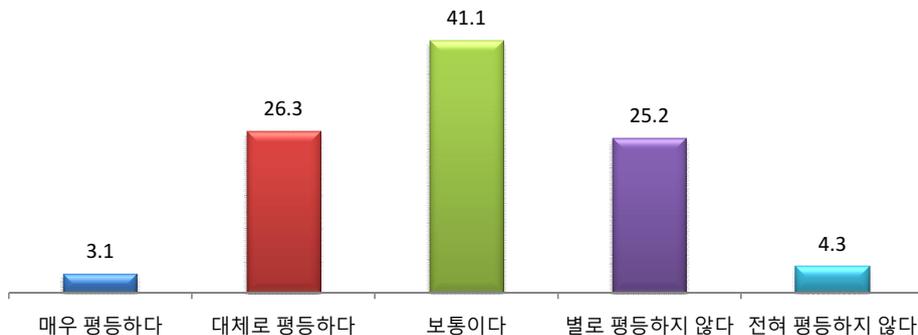
## 4. 대학의 성 평등의식에 관한 연구

### 1) 사회의 성 평등에 관한 인식

우리 사회가 남성과 여성간 얼마나 평등한가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41.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대체로 평등하다(26.3%)’, ‘별로 평등하지 않다(25.2%)’, ‘전혀 평등하지 않다(4.3%)’, ‘매우 평등하다(3.1%)’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7〉 사회의 성 평등에 관한 인식

| 구 분        | 응답수 | 비율(%) |
|------------|-----|-------|
| 매우 평등하다    | 14  | 3.1   |
| 대체로 평등하다   | 117 | 26.3  |
| 보통이다       | 183 | 41.1  |
| 별로 평등하지 않다 | 112 | 25.2  |
| 전혀 평등하지 않다 | 19  | 4.3   |
| 계          | 445 | 100.0 |



〈그림 3-22〉 사회의 성 평등에 관한 인식

실질적 성 평등을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강화’가 59.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여성의 사회 문화적 활동 확대(18.1%)’, ‘여성의 경제 세력화(15.5%)’, ‘여성의 정치참여 및 대표성 제고(4.8%)’, ‘노인 여성 및 이주 여성 우대 강화(2.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8〉 실질적 성 평등을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

| 구 분                 | 응답수 | 비율(%) |
|---------------------|-----|-------|
| 여성의 경제 세력화          | 48  | 15.5  |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강화 | 183 | 59.0  |
| 노인 여성 및 이주 여성 우대 강화 | 8   | 2.6   |
| 여성의 사회 문화적 활동 확대    | 56  | 18.1  |
| 여성의 정치참여 및 대표성 제고   | 15  | 4.8   |
| 계                   | 310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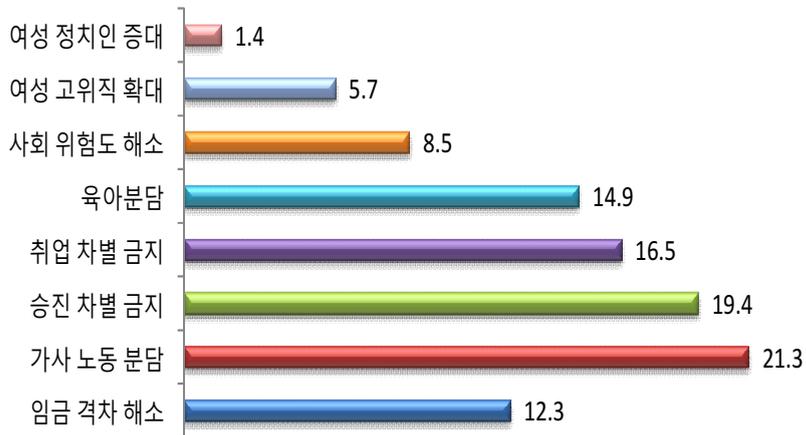
〈그림 3-23〉 실질적 성 평등을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

## 2) 실질적 성 평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사회에서 실질적 성 평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가사 노동 분담(21.3%)’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승진 차별 금지(19.4%)’, ‘취업 차별 금지(16.5%)’, ‘육아 분담(14.9%)’, ‘임금 격차 해소(12.3%)’, ‘사회 위험도 해소(8.5%)’, ‘여성 고위직 확대(5.7%)’, ‘여성 정치인 증대(1.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 내에서의 성 평등 의식 제고 및 지역사회 및 국가차원에에서의 성 평등 의식 제고가 동시에 필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3-39〉 실질적 성 평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 구 분       | 응답수 | 비율(%) |
|-----------|-----|-------|
| 임금 격차 해소  | 52  | 12.3  |
| 가사 노동 분담  | 90  | 21.3  |
| 승진 차별 금지  | 82  | 19.4  |
| 취업 차별 금지  | 70  | 16.5  |
| 육아분담      | 63  | 14.9  |
| 사회 위험도 해소 | 36  | 8.5   |
| 여성 고위직 확대 | 24  | 5.7   |
| 여성 정치인 증대 | 6   | 1.4   |
| 계         | 423 | 100.0 |



〈그림 3-24〉 실질적 성 평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 3) 실질적 성 평등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우리 사회에서 실질적 성 평등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남녀 차별 사회의식 변화’가 61.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여성에게 불리한 법과 제도 개선(15.7%)’, ‘양성 평등 교육 강화(13.6%)’, ‘정부의 여성 정책 강화(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40〉 실질적 성 평등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 구 분               | 응답수 | 비율(%) |
|-------------------|-----|-------|
| 여성에게 불리한 법과 제도 개선 | 67  | 15.7  |
| 남녀 차별 사회의식 변화     | 262 | 61.2  |
| 양성 평등 교육 강화       | 58  | 13.6  |
| 정부의 여성 정책 강화      | 24  | 5.6   |
| 기타                | 17  | 4.0   |
| 계                 | 428 | 100.0 |



〈그림 3-25〉 실질적 성 평등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 4) 소결

첫째, 제주대학교 여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남성과 여성간의 평등에 대해서는 보통이다(41.1%)가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평등하지 않은편(29.5%)이라는 인식과 평등한 편이라는 인식(29.4%)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실질적 성 평등을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강화(59.0%)’, 여성의 사회 문화적 활동 확대(18.1%) 등으로 나타났고, 실질적 성 평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가사 노동 분담(21.3%)’, 승진 차별 금지(19.4%), 취업 차별 금지(1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실질적 성 평등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남녀 차별 사회의식 변화’(61.2%)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여성에게 불리한 법과 제도 개선(15.7%)’, 양성 평등 교육 강화(1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대생들은 실질적 성 평등을 위해서는 법 제도적인 개선보다 사회의식이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관련 교육 강화 및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제주대학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활과 진로·취업, 학생상담센터 인식과 상담관련, 성평등 의식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에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도록 실시되었다. 구체적으로, 응답대상은 층화추출표본방식에 의해 단과대학별로 총 500명에게 배부되었으며, 그 중 회수된 447부(89.4%)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제주대학교 재학중인 여학생들은 본교의 평판 및 이미지와 본교 학생이 된 것에 대해 비교적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공에 대한 만족도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공 선택 동기는 적성과 흥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들이 진로 선택시 전공과 연결된 취업을 희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공 관련 취업정보에 대한 안내 및 관련 경험을 쌓을 수 인턴십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현재 가장 필요한 정보는 진로 및 취업문제, 전공학과의 특성과 전망 등 향후 진로에 대한 정보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실제 대학생활에서 하고 싶은 일은 취업과 관련된 진로선택이나 고시/자격시험 준비보다는 해외어학연수 또는 해외인턴십, 깊이 있는 전공 공부, 폭넓은 대인관계 등으로 나타나 학생들이 취업고민을 하면서도 대학생활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여대생들은 제주대학교의 각종 제도 가운데 복지시설 및 취업지원제도에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실설 및 개선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수요자 맞춤형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학생들에게 현재 제도 소개 및 향후 필요한 제도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한 정기적인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제주대학교 여학생들은 졸업 후 진로계획에 대해서 취업(57.1%)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졸업 후 진로 선택 시기로 '3학년 1-2학기쯤, 2학년1-2학기쯤'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졸업 후 진로계획이 취업이 아니라고 응답한 여대생들은 '취업준비를 위한 자기개발', '대학원 진학', '유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 희망 지역으로는 제주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졸업 후 희망하는 초임 연봉에서는 2,000~2,500만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소 2학년부터 진로 및 취업 지도가 체계적

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학생상담센터의 활성화와 함께 진로 및 취업을 위한 비전공 교과과목의 개설 및 수강 의무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지며, 조사결과 토대로 대학과 제주도 자치단체청년일자리 담당부서와 연계하여 인턴십 실시 및 인턴십이 정규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현재 인턴십 프로그램의 재설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취업 제공 방법의 다양화를 모색해야 한다. 현재 여대생들이 취업 또는 채용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에 대해서는 학교 선배, 친인척 등 주변 네트워크, 전공 교수님, 취업종합정보서비스(교내 취업전략본부)의 순으로 나타나 개인적인 관계로 인한 정보 획득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취업정보 획득의 중요성 교육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학생상담센터의 기능 홍보 및 활성화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제주대학교 여학생들의 학생상담센터에 대한 인지도에서 ‘이용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7.4%에 그쳤으며,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도 55.4%로 높게 나타나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제주대학교 학생상담센터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혼자서 처리해보다 안되면 찾아가겠음’이라는 응답이 33.6%로 가장 높았고, ‘기꺼이 이용하겠음’은 15.5%에 불과하였다. 학생상담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상담소에 대한 인식 부족’이 39.8%로 가장 높게 나타나 학생상담센터 홍보도우미(단과대학별) 모집, 브로셔 제작 등을 통해 학생상담센터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진로/취업, 고민상담, 정서상담, 자기 이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제주대학교 여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남성과 여성간의 평등에 대해서는 보통이다(41.1%)가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평등하지 않은편(29.5%)이라는 인식과 평등한 편이라는 인식(29.4%)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질적 성 평등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남녀 차별 사회의식 변화’(61.2%)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여성에게 불리한 법과 제도 개선(15.7%)’, 양성 평등 교육 강화(1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대생들은 실질적 성 평등을 위해서는 법 제도적인 개선보다 사회의식이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관련 교육 강화 및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박정환·김두화(2010). “2009 재학생 실태조사” 『학생생활연구』 31(1), pp. 61-131.
- 민무숙 외(2011).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우수사례발굴 및 확산방안.
- 신선미·정경화·구정화(2008). 『여대생의 직업세계 인식실태조사』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신선미(2007). 『여대생의 직업세계 인식 실태조사 도구개발』 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 오윤정 · 남진열(2015). 『제주지역 대학생의 진로 준비 및 취업장벽에 대한 실태 분석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6권 1호 p.31-63.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이윤우(2009). 『여자대학생의 진로탐색활동을 위한 직업카드 개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제주대학교 직업능력개발원(2008). 재학생 실태조사 보고서.
- 제주대학교 직업능력개발원(2009). 재학생 실태조사 보고서.
- 제주대학교 직업능력개발원(2010). 재학생 실태조사 보고서.
- 제주대학교 직업능력개발원(2011). 재학생 실태조사 보고서.
- 제주대학교 취업전략본부(2014). 학생생활연구 제35집.